

# 도서관,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 전국 도서관학과 학생들, 획기적 정책전환 요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들이 그 시설·직원·예산면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실태'라는 사실은 진작부터 지적돼 왔다. 최근 전국 도서관학과학생연합회는 '전국 공공도서관 실태조사' 및 '일선 도서관 사서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도서관발전의 장애요인들을 적출해내고, 그 해결책으로 ▲도서관 업무의 문화부(신설 예정) 이관과 局단위의 전담부서 설치 ▲관장직의 전문직 보임 ▲사서직의 전문성 보장과 승진제한의 철폐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겸직 관장' 많은 郡立도서관이 특히 부실

현행 도서관 운영체제의 불합리성은 우선 그 파행적인 행정체계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전국 185개 공공도서관의 소관부처를 보면 그중 131개가 문교부, 38개가 내무부, 4개가 문공부에 소속돼 있으며, 이밖에 시립도서관이 11개, 기타 1개로 소관 행정조직이 다원화되어 있어 일관된 도서관정책 시행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관장직도 전문직 관장은 전체의 11% 미만인 20개관에 불과하고, 나머지 165개관은 비전문직인데다가 그나마 그중 55개관은 군수·교육장 또는 군교육청 관리과장 등이 관장직을 겸임하고 있어 도서관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어렵게 되어 있다. 특히 이들 '겸직' 군립도서관 중에 질적으로 부실한 도서관이 많다는 사실이 그런 사정을 단적으로 뒷받침한다.

최근 (89년 1월24일~2월10일) 전국 도서관학과 학생연합회가 전국 185개 공공도서관

**국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은 자료·전문적 사서·예산 등 모든 면에서 '도서관'이라고 불리기엔 낮은 실정에 있다. 그래서 모든 도서관인들은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도서관행정체제를 신설될 '문화부'로 일원화, 도서관정책을 총괄하는 局단위의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 강원도·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105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그중 상당수가 기대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임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

우선 도서관운영의 중추인력인 사서의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10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조사대상 전체의 26.6%(28개)에 불과하고, 반수에 가까운 42.7%(45개)는 고작 1~2명 뿐인가 하면 단 한명의 사서도 없는 곳이 12.3%나 된다.

사서를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는 곳은 서울 남산도서관(48명)과 정독도서관(40명)이고, 한명의 사서직도 없는 곳은 경기도 안양·의정부·구리·평택·동두천 시립도서관과 파주군립도서관을 비롯, 충북 괴산·영동, 경북 안동·경산·군위군립도서관 등 모두 13곳에 이른다.



도서관의 장서가 부실하다보니, 도서관 이용자들의 연간이용책수가 50~60권에 불과한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자료실을 완전히 폐쇄한 곳도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고작 '독서실'기능 밖에 못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나마도 여자에 비해 남자사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는데다가 특히 正司書의 비율이 적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테면 부산시립구포도서관의 경우 9명의 사서가 전원 여자, 그것도 준사서인가 하면, 경남도립창원도서관의 경우는 14명의 사서 중 13명이 여자에 그중 10명이 준사서, 김해도서관은 8명 모두가 여자 준사서이다. 또 사서가 1명밖에 없는 경기도 가평 및 남양주군립도서관을 비롯, 경북 영천·의성·풍기, 전남 고흥군립도서관 등은 모두 여자 준사서이다.

### 한심한 장서... '전집물 전시장' 방불

장서량에 있어서도 시·도립도서관에 비해 군립도서관쪽이 빈약하기 짝이 없다. 10만 권 이상의 장서를 갖춘 곳은 고작 9개관 뿐이

고, 전체의 44.6%(47개)는 1만권 미만이다. 그중 장서량 5천권 미만인 곳은 경기도 남양주·송탄·파주·동두천·안성·평택, 경북 구미·영천도서관 등 13개관에 이른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문학서적에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장서의 70~80%가 전집이라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군립도서관들은 '전집물 전시장'을 방불케 해 충격적이었다"는 것이 조사자들의 말이다.

또 구독하는 잡지의 종수도 대도시 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평균 10여종에 불과한데 그나마 '기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잡지 등 전문지를 구독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한심한 사정은 각 도서관의 예산(도서관구입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연간 도서관구입예산이 100만원~400만원인 곳이 39개

최초로 공개되는 빨치산 수기

# 南部軍

李泰 著

세계의 어느 유격전도 그 가열함을 따를 수 없다는 지리산 빨치산. 남한 빨치산의 전설적 총수 李鉉相의 직속부대「南部軍」의 戰史 편찬 담당자가 스스로 겪고 보고 기록한 상상을 전하는 빨치산 戰史.

국판 상·하 각권 값 3,000원

두레 ☎ 702-2119

강석경의 장편소설

# 가까운 골짜기

히늘로 떠도는 뿌리  
강물이 풀리면서  
생존의 땅  
그리운 인력  
불고가는 바람  
장마  
땀별  
모두 다 꽃씨를 가지고 있다.  
새벽길

가격 4,000원

민음사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44-1 TEL. 734-4234·6110

전국의 베스트셀러 (스포츠서출판표 1월 29일 ~ 2월 29일)

# 거꾸로 읽는 세계사

드레퓔스사건  
피의 일요일  
사라예보사건  
10월혁명  
대공황  
대장정  
아돌프히틀러  
거부하는 팔레스타인  
미완의 혁명 4·19  
베트남 전쟁  
검은이카루스, 말콤 X  
일본의 역사왜곡  
해과 인간

값 3,200원

도서출판 푸른나무  
마포구 용강동 116-3  
☎ 701-0657, 719-9650

뉴욕타임지 선정 6개월 베스트셀러 1위

# 거울 속의 이방인

시드니 셸던

河明南 譯

실로 오랜만에 재미있고 읽어볼만한 소설이 나왔다. 이 소설을 읽는 독자는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박진감과 스릴을 맛볼수 있다.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약몽을 묘사하는 장면은 피를 식게할 정도로 공포를 느끼게 한다.

3,500원

덕우출판사 서울·성동구 성수 2가 289-4 ☎ 466-8498

관(37.1%), 100만원 미만인 곳이 10개관(9.5%)이나 된다. 그중에도 경기도 용인군립도서관처럼 연간 도서관예산이 겨우 30만원 뿐인 곳도 더러 눈에 띄고, 심하게는 20만원(경기 송탄시립도서관)에 불과한 곳도 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연간 도서관예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꼴이다.

공공도서관의 속사정이 이렇고보면, 도서관이란 곳이 학생들이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시험준비를 하는 '독서실' 구실밖에 못할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렇기에 도서관 이용자들의 연간이용책수가 겨우 50~60권에 불과한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아예 자료실을 완전히 폐쇄하고 대출을 전혀 하지 않는 도서관조차 있을 정도이다.

한편 '문화부'신설을 앞두고 도서관의 소관부처 이관문제 등에 대한 司書들의 반응은 자못 민감하고 기대 또한 크다.

### '문화부 신설'에 큰 기대

동 연합회가 같은 기간에 강원도·제주도를 제외한 각지역 공공도서관의 사서 477명(남자 154명, 여자 321명, 미상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도서관의 제반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도서관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사서들이 '불만족'(50%) 또는 '대단히 불만족'(30.8%)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현재 공공도서관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①행정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한 정책부재(36.7%) ②도서관 수의 절대부족(23%) ③예산부족(12.3%) ④처우개선(12.3%)등을 꼽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서들(82%)은 문화부의 신설에 기대를 걸면서, 앞으로 문화부가 생길 경우 도서관행정을 문화부에서 일원화, 課단위 이상의 도서관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바라고 있다. 도서관이 당면한 제문제의 요인이, 현재 도서관의 소관부처가 다원화되어 있을 뿐더러 도서관 행정을 문교부의 사회교육제도가 관장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독자적

인 도서관정책의 부재'에서 파생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그들은 현재 전체 공공도서관의 90% 가까이가 비전문직 관장을 '모시고' 있는데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서들은 도서관장을 전문직자로 보임해 주기를 바라고(92.6%) 있으며, 또한 현재 행정직급에 묶여 있는 사서직군을 전문직으로 독립시켜 줄 것을 바라고(74.4%) 있다.

### 司書職의 전문성 보장

결론적으로 이들 사서, 나아가 전체 도서관인들의 관심은 도서관업무의 '문화부 이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도서관업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장기적인 도서관 발전정책이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여 입안·심의·조정·관장하는 중앙행정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도서관업무는 방송통신대·방송통신교·개방대학·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관한 업무와 함께 문교부의 사회교육제도에 의해 관장되어 있어, 마치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는 격"이라는게 도서관인들의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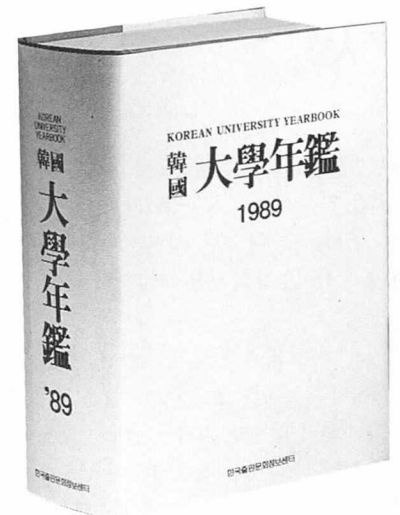
전국도서관학과학생연합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①공공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를 신설될 문화부로 이관하고, 문화부에 도서관 소관업무를 전담할 局단위의 중앙행정부서를 설치할 것 ②司書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먼저 행정직군으로 통폐합된 사서직군을 분리할 것 ③현재 사서직에 대해 4급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직급승진 제한의 부당한 처사를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곧 전체 도서관인들의 서명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도서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변혁'의 시대에 정녕 도서관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이승우 주간

### 화제의 책

## 국내외 대학의 전모 담은 '백과'

89년판 「韓國大學年鑑」



대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수록, 정리한 「韓國大學年鑑」 89년판이 한국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간행됐다.

지난 82년 첫선을 보인 이래 84년판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5년만에 속간된 이 「대학연감」은, 대학으로 대표되는 지식사회의 전체와 세부를 꼼꼼히 챙겨 체계를 세운 말 그대로의 '대학백과사전'. 특히, 창간호 및 84년판에는 없던 '세계대학'편과 '연구·문화단체'편을 새로 덧붙여 단순한 속간호에 머물지 않는 '재창간호'의 면모를 보인다.

"자료수집에만 16개월이 걸렸고, 그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수록정보의 풍부함과 정확성, 신뢰도를 자부한다"는 것이 책을 펴낸 成俊濟사장의 말이다.

모두 다섯편으로 나누어, '세계대학'편에서는 총53개국 2,842개 대학의 연혁과 설치학부·학기·학생수 등을 소개하고, 따로이 '재외한국인교수인명록'을 나라별로 정리해 덧붙였다. 2,108명의 재외한국인교수의 전공·재직교·자택·학력 및 경력 등이 밝혀져 있다.

'대학개황'편에는 국내 대학의 총체적인 조감도가 그려져 있다. 학교와 학생·직원의 수를 비롯해 시설·도서관·기숙사·장학제도·취업현황 등에 관한 각종 자료와 통계분석을 수록함으로써, 엘리트 양성기관에서 대중화의 추세로 치닫고 있는 우리 대학사의 편린들을 발견할 수 있다.

'대학현황'편은 275개 국내 대학의 대학별 각론, 설치학과 및 교수명단을 중심으로 연

혁과 소재, 학생수·행정기관·부설연구소 등은 물론, 해당대학의 발전계획과 특색, 해외자매대학, 각종 서클활동까지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다.

'세계대학'편과 함께 89년판에서 새롭게 시도된 '연구·문화단체'편은 '대학 밖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연구소 및 문화단체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20개소를 비롯해 국공립 및 기업부설 연구소와, 9개 분야 282개학회 및 8개 연구협의회, 기타 각종 학술문화단체에서 육성장학단체에 이르기까지 그 현황을 총망라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전국대학교수인명록'에는 총 29,151명에 달하는 전임강사급 이상 현직교수들의 생년월일·출생지·학력 및 경력·소속대학·담당과목·학위논문 및 저서·현주소·전화번호 등을 수록해 충실한 자료집 구실을 한다.

한국출판문화정보센터/B4/1841면/80,000원

### 이문열 新作장편소설

추락  
하는것은  
날개가있다

출간 즉시 독서계를  
침몰시킨  
오늘의 베스트셀러  
전국서점 판매중  
自由文學社  
(353) 7001~3  
값 3,300원

### 마광수 첫 에세이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출간 즉시 독서계를 침몰시킨 베스트셀러  
전국서점 절찬판매중  
自由文學社  
(353) 7001~3  
값 3,500원

전국의 베스트셀러

(스프링 1월 29일 ~ 2월 28일)

제100회  
아쿠다가와(芥川)상  
수상작!!

재일동포 작가 李良枝

조국을 배우고자 서울에 유학온 재일동포 2세 여자대학생「由熙」가 모국에 적응하지 못하며 겪는 갈등과 좌절을 치밀하게 그려냈다.

신국판/360쪽/3,800원

도서출판 삼신각 서울 종로구 효자동 58번지  
736-8858, 734-4751

전국서점 베스트셀러

내 아들이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P. 체스터필드  
권오갑 옮김

아버지도 읽었다.  
어머니도 읽었다.  
아들도 딸도 읽자.  
인생의 성공을 약속하는  
우리집의 좌우명!  
직장 단체주문 해도!!

乙酉文化社 734-3515  
733-8153